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개교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

미원 조영식 박사

경희대학교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의 비전

미래메시지 원본 공개, 배경 및 의미

2012년 2월 18일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美源 趙永植) 박사가 타계했다. 그 후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중앙회의실(옛 학원장실) 금고 안에서 9권의 책을 발견하게 된다. 개교 50주년과 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 4권, 개교 50주년과 100주년에 보내는 앙케이트 2권, 개교 50주년과 100주년에 보내는 연혁사 2권, 1964년 당시 경희의 간부 및 교수 명단 1권의 원본이었다.

1964년 10월 2일, 조영식 박사는 개교 15주년 기념 학원제에서 경희의 미래에 보내는 메시지(이하 미래메시지)와 앙케이트 결과를 발표했다. 원본을 개교 50주년과 100주년을 맞는 1999년과 2049년에 각각 공개해줄 것도 요청했다. 그러나 개교 50주년에는 설립자가 생존해 있을 때여서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미래메시지와 앙케이트 원본이 발견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개교 100주년 앙케이트 취지문에는 “중앙도서관 정초석(定礎石) 안에 보관되었다가 이제부터 85년 후인 2049년 5월 18일에 개봉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미래메시지와 앙케이트 원본이 발견된 후 경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숙고를 거듭했다. 개교 100주년 미래메시지와 앙케이트의 공개 시기가 2049년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특별한 고려, 미래지향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무엇보다, 보존 상태가 심각했다. 한지에 직접 붓글씨로 쓴 원본은 지난 50여 년 동

안 상당한 정도로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다. 경희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문화 사적 가치를 생각할 때, 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 전 구성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거 교적 차원에서 영구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희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는 것이 설립자의 뜻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바른 길이라고 보았다. 개교 100주년 미래메시지에서 조영식 박사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큰 목표가 현명한 여러분들에 의해서도 계속 추진됨으로써 학술 발전을 통한 인류의 문화 향상과 복리 증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 단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역시 정체성 확립, 국내외적 위상 등 경희의 미래에 관한 설문 문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끝으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소통과 공감의 활성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조영식 박사는 미래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없는 미래 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 “(경희의) 창학정신과 교육방침을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하려는 뜻”과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정신상으로 소원해지기 쉬운 우리의 상호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경희의 현재 세대에게는 과거와 소통하며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

경희는 지난 2009년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며 21세기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왔다. ‘학문과 평화’의 전통 속에서 학술적 탁월성을 기반으로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 경희 구성원과 대학의 발전, 더 나아가 지구공동체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경희의 미래비전과 미션이 50년 전에 이미 선언적 형태로 제시됐음을 미래메시지와 앙케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교 100주년에 보내는 미래메시지와 앙케이트는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경희 구성원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가지 않은 길의 이정표다.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개관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의 미래

미래메시지

해설 세계적 명문대학을 향한 경희의 도전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전문)

양케이트

해설 경희인이 전망한 세계와 한국, 경희의 미래
개교 100주년의 세계
개교 100주년의 한국
개교 100주년의 경희

자료

1.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양케이트 설문
2. 경희학원 각급 학교에 대한 양케이트 결과

세계적 명문대학을 향한 경희의 도전

경희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이하 미래메시지)는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대학’이라는 2개의 핵심어(keyword)로 요약된다. ‘경이로운 경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평가다. ‘세계적인 대학’은 경희의 미래비전과 목표다.

텍스트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미래메시지는 2개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크게 5개의 의미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머리에서 조영식 박사는 미래메시지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어, 인류와 문명의 위기를 진단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다. 위기 극복의 동력이 ‘창조적 노력’임을 강조한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불과 15년 만에 이룩한 ‘경이로운 경희’의 성취를 돌아보며 그 바탕이 된 경희정신과 교육방침을 설명한다. 네 번째 단락에서 ‘경희가족운동’과 ‘보다 나은 대학 건설운동’을 소개하고, 그 ‘최후의 목표’가 세계적인 대학 건설에 있다는 담대한 포부를 밝힌다. 끝으로, 오는 2049년 5월 18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할 후배들이 경희의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이뤄주기를 당부하는 것으로 미래메시지를 마무리한다.

미래메시지 취지

서론에 해당하는 첫 단락에서 조영식 박사는 미래메시지를 작성하게 된 네 가지 이유(발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경희의 창학정신과 교육방침을 바로 전달하려는 뜻에서이다. 둘째, 시대를 뛰어넘어 경희공동체의 상호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셋째, 후배들이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술 발전을 통한 인류의 문화 향상과 복리 증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이다. 넷째, 현대(1960년대) 사회의 문제점과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알려줌으로써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건설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라는 소망에서이다.

문명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전망

조영식 박사는 당시의 국내외 정세 및 사회 현실에 관해 “우리는 확실히 세기적 진통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동서 양 진영의 긴장(냉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3차 세계대전(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인구의 약 60%가 굶주림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0년마다 2배씩 급증하는 추세여서 장차 식량문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조영식 박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지 않았다. “지난 20년 동안 강대국이나 약소국은 한결같이 인류사상 처음 보는 대건설의 붐을 지구상의 구석구석마다 일으키고 있었으며, 또 인류의 생활수준도 급속도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70여 개국을 여행하는 가운데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조영식 박사는 지나치게 발달된 핵무기와 첨단 과학병기, 극도로 대립된 이데올로기와 지도자의 지나친 공명심, 인구문제 등을 언급하며 “허다한 아포리아(aporia)가 우리의 광명을 차단하여 암흑으로 뒤덮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검은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눈부신 광명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아포리아’라는 어휘 선택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아포리아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난관’을 뜻하는 철학 용어다. 그러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포기’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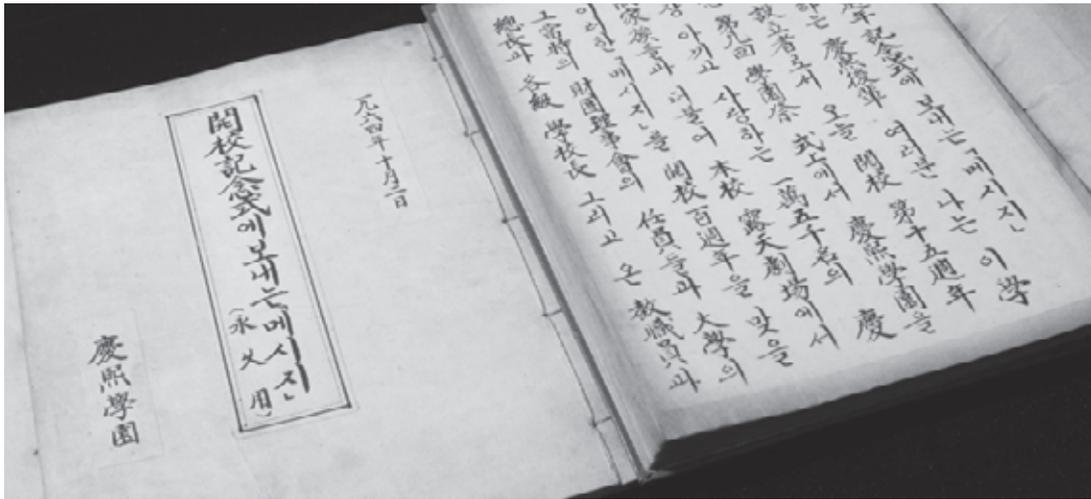
경이로운 경희, 경희정신과 교육방침

조영식 박사가 피난지 부산에서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해 경희의 기틀을 세운 것은 1951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불과 10여 년 만에 경희는 가인가 상태의 초급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일관된 교육체제를 갖춘 국내 최대 종합학원으로 성장했다. 조영식 박사는 경희의 역사야말로 숭한 고난(아포리아)을 극복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이로운 성취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미래메시지는 그 바탕이 된 경희정신, 즉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창의와 끊임없는 노력 즉 창의적인 노력은 우리 경희정신의 첫머리요, 고난에도 전하고 역경에 감투하는 호연지기 즉 진취적 기상은 그 둘째요, 평화와 문화복지 건설의 기틀을 단결에서 구하는 것 즉 건설적인 협동은 그 셋째가 된다.”

이 같은 경희정신 아래 수립된 경희의 교육방침은 인간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 등 네 가지다.

‘인간 이전에 학문이 있을 수 없고 인간 위에 학문이 있을 수 없다’는 평소 지론에 따라 ‘인간교육’을 교육방침의 첫째로 정했다고 조영식 박사는 말했다. ‘법이 있기 전에 사회가 있고 도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폭넓고 부드러운 정서생활을 권장한다는 취지에서 정해진 두 번째 교육방침은 ‘정서교육’이었다. 세 번째로, 경희의 ‘과학교육’은 현대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생활의 과학화를 실천하는 동시에, 모든 일에서 효율성과 타당성을 기하는 행동의 합리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교육'은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성숙한 인간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희의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적인 대학 건설의 꿈

조영식 박사는 경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희가족운동'과 '보다 나은 대학 건설운동'에 관해 소개했다. 그것들은 경희의 비전과 목표, 창학정신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기 위한 거교적 캠페인이었다.

'경희가족운동'은 비전과 목표를 향해 교직원과 재학생 및 졸업생, 나아가서는 그들의 가족인 학부모까지도 '경희가족'으로 대동단결하자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었다. 학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경희가족운동을 전개해 전 국민의 애족단합운동으로 확

대해나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보다 나은 대학 건설운동'은 구성원 모두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 주어진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유기적인 제휴와 협력을 통해 '최후의 목표'에 도달하자는 취지에서 전개된 교육, 연구, 실천, 행정 전 부문의 혁신운동이었다. 조영식 박사가 말한 '최후의 목표'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었다.

개교 15주년인 1964년 당시, 조영식 박사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 영영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자신감을 피력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기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의 뜻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들의 후배인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희의 노력은

대학의 위상 강화에만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았다. 조영식 박사는 “고차원적인 정신문화 향상과 최고도의 과학문명 발달로 복지사회를 이루어 우리 인류의 영원인 지상의 낙토, 즉 문화세계를 이 세상에 창건해야 한다는 것은 인류의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말로 경희의 궁극적 지향을 밝혔다.

그 꿈의 실현에 기여할 고등교육의 중요성, 경희의 소명의식도 강조했다. “오로지 고도로 발달된 교육의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오한 학술 연구와 국가사회의 지도자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학부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하겠는가.”

개교 100주년에 대한 희망

미래메시지는 개교 100주년을 맞는 미래의 후배에게 보내는 당부의 말로 끝을 맺는다. 조영식 박사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숭고한 인류의 사명을 되새기며 “민족적, 인류적 대임을 자각하고 우리의 심혈을 경주하여 키워온 경희학원을 여러분들도 아끼고 사랑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영식 박사는 “이 글을 여러분에게 보낼 때 생존해 있던 나를 포함하여 교수와 직원 그리고 재학생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그때에는 이미 유명을 달리하여 이 자리에 없게 될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한 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을 저 세상에서나마 힘껏 돕고 축복하면서 경희학원을 여러분과 같이 지킬 작정이니 부디 경희정신으로 감투해주기 바란다”는 맺음말로 경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전했다.

미래메시지 요약

작성 취지

1. 창학정신과 교육방침 전달을 위하여
2. 경희공동체의 소통을 위하여
3. 세계적 대학 건설의 꿈을 위하여
4. 더 나은 경희의 미래를 위하여

경희정신

1. 창의적 노력
2. 진취적 기상
3. 건설적 협동

경희의 교육방침

1. 인간교육
2. 정서교육
3. 과학교육
4. 민주교육

경희의 교훈

1. 학원의 민주화
2. 사상의 민주화
3. 생활의 민주화

경희의 목표

1. 세계적인 대학 건설
2. 문화세계의 창조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



친애하는 경희 후배 여러분.

나는 경희학원 설립자로서 오늘 개교 제15주년 기념 제9회 학원제 식장에서 경희학원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1만 5,000명의 경희가족과 더불어 본교 노천극장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개교 100주년을 맞아 그 당시의 재단이사회 임원과 대학총장, 각급 학교장 그리고 온 교직원과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의의 취지는, 첫째 경희학원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창학정신과 교육방향을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하려는 뜻에서이며, 둘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정신상으로 소원해지기 쉬운 우리의 상호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며, 셋째 내가 뜻한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큰 목표가 현명한 여러분들에 의해서도 계속 추진됨으로써 학술 발전을 통한 인류의 문화 향상과 복리 증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뜻에서이며, 넷째 현금¹⁾ 사회의 체문제점을 모아 여러분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미래사회에 대한 관측을 종합하여 알려줌으로써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연구에도 참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국내외 정세를 일고해볼 때 우리는 확실히 세기적 진통기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어언 20년이 가까워오는 동안 동서양 진영의 긴장은 아직도 일진일퇴하여 해소되지 않은 채로, 우리 지구상에는 어간²⁾ 국지전쟁만 해도 무려 30여 회에 걸쳐 벌어졌던 것이며 한국, 독일, 중국, 베트남이 아직도 2차대전에 의해 양단된 채 어느 한 나라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또 어디서 무서운 3차대전이 발발하여 인류를 원자섬멸전³⁾으로 몰아넣어 지각을 터뜨릴지도 알 수 없는 현금에, 세계 인구의 약 60퍼센트가 저녁에 배가 고프름을 참고 침상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 하에, 인구 증가는 더욱 우심하여져⁴⁾ 근래에 와서는 약 30년마다 2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앞으로는 무엇인가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수습될 수 없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은,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서정시인 페트라르카(Petrarca)는 자기보다 약 천년 전에 살던 로마 시성(詩聖)들에게 과거보다도 더 암흑한 사회에 살고 있는 자신을 한탄하여 읊소했는가 하면,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철학자 디드로(Diderot)는 수백년 후에 생을 영위할 후손들에게 보내는 글 속에서 세계는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라고 단정해 말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국⁵⁾은 비판도 낙관도 능히 같이할 수 있을 만한 세계라고 생각됩니다. 저 처절하였던 2차대전이 있는 후 계속하여 오늘날까지 어려운 세국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⁷⁾을 박차고 근 20년간 강대국이나 약소국은 한결 같이 인류사상 처음 보는 대건설의 붐을 지구상의 구석구석마다 일으키고 있으며, 또 인류의 생활수준도 급속도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70여 개국을 친히 여행하는 가운데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이 있어서 인간을 인간다운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인간사회에는 정사⁸⁾와 고틱이 있어서 정의의 대도로 나가게 하는 요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속에 인간의 자기완성을 위한 노력이 있고, 사회정의와 사회복지 및 인류평화를 위하여 가치를 모색하고 창조하는 인류의 대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역사상에 남아 있는 모든 인류의 값 있는 기여와 업적은 대부분이 이 속에서 창조되어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클라렌스 웨임스(Clarence Weems) 교수는 자기 저서를 통하여 한국민은 언제나 국난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하면 더욱 강하게 되어 모든 난관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찬란한 업적과 문화를 창조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아가며 삼국을 통일했고, 그 후 당나라의 압박과 위협을 받아가며 그 찬란한 신라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또 세종대왕도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함경도에 육진 개척을 하면서 문화 창업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에는 확실히 지나치게 발달된 핵무기와 신예 과학병기, 그리고 극도로 대립된 이데올로기와 지도자의 지나친 공명심, 또 인구문제 등 허다한 아포리아(aporia)가 우리의 광명을 차단하여 암흑으로 뒤덮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검은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눈부신 광명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의 보편의지가 있는 동안 ‘궁즉통이요 통즉달이요 달즉개⁹⁾’라는 인간사회의 평범한 진리가 우리에게 뚫고 살아나아갈 계제¹⁰⁾를 장만하여주는 줄도 압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때에나 양심을 잡고 이성에 살아야 합니다.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판도 우리 인간에게겐 금물입니다. 오직 이성을 쫓아 인류의 대도를 걸어가는 동안 모든 인간의 어려움은 스스로 극복되고 인류의 문화는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 경희의 오늘은 이 속에서 잉태되었고 이 속에서 창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경희의 역사야말로 고난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이적¹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우리 경희대학이 불과 십수년 동안에 조그마한 초급대학에서 대종합대학이 되고, 또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교, 남자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와 초급대학에 이르기까지 부속 교육기관을 건립하여 한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종합학원이 되었다고 하여 모두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이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년 전만 해도 적막한 무명의 산골짜기에 황폐했던 그 터가 대학 캠퍼스로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었고, 또 그 시설이 동양적인 규모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각급 부속학교를 비롯하여 대학의 질적 수준이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위치에 이르게 되고 보니 가히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빛나는 공적은 결코 나에게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경애하는 대학의 간부들과 교수, 직원 그리고 내가 무한히 아끼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클라렌스 워스 교수가 지적한 그대로 우리도 혈통을 이어받은 한민족이기에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더욱 뭉쳐 강해졌던 것이며, 우리의 일사불란한 애교심과 경희정신은 오늘의 기적 아닌 기적을 낳게 하였다는 것을 후배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창외와 끊임없는 노력 즉 창의적인 노력은 우리 경희정신의 첫머리요, 고난에 도전하고 역경에 감투하는 남아의 호연지기 즉 진취적 기상은 그 둘째요, 평화와 문화 복지 건설의 기틀을 단결에서 구하는 것 즉 건설적인 협동은 그 셋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이전에 학문이 있을 수 없고 인간 위에 학문이 있을 수 없다’는 평소 나의 지론은 인간교육을 우리 대학 교육방침의 첫째로 정하게 하였으며, 법이 있기 전에 사회가 있고 도덕이 있음을 강조하여 폭넓고 부드러운 정서생활을 권장하는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자, 자연에서 배우자, 자연에서 살자’고 하는 모토의 정서교육을 그 둘째로 정하였으며, 과학의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게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생활의 과학화와 모든 일에 효율성과 타당성을 기하는 행동의 합리화 즉 과학화를 주장하는 과학교육이 그 셋째가 되었고, 봉건적 풍조를 일소하고 새로운 민주 기풍에 살 수 있는 인간 도야를 위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골자로 하는 민주교육이 그 넷째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사한¹²⁾ 이상과 창학정신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기 위하여 경희가족운동과 보다 나은 대학 건설운동을 전개기로 하였습니다.

경희가족운동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대동단결하자는 뜻에서 교직원과 재학생 및 졸업생, 나아가서는 그의 가족인 학부형까지도 한 가족이 되기로 약속한 것이며, 둘이 모이면 힘이 이분되고 셋이 모이면 힘이 삼분된다는 역현상을 가져오는 우리 민족의 고질 즉 분열과쟁¹³⁾을 시정하여 우리도 단결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풍토를 마련하여보자는 데 주안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바라는 것은 학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로 나아가서도 그가 있는 직장에서, 향리에서 우리의 가족운동이 국민의 애족단합운동으로 확대되어 방방곡곡에 메아리치게 하자는 것이며, 보다 나은 대학 건설운동은 우리의 목표 성취를 위하여 모두가 목적의식을 통일하고 각자 자기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종횡의 유기적인 제휴와 협력을 얻음으로써 일의 완벽을 기하며 차선을 지향하는 점진개선주의로써 최후의 목표를 도달하자는 것입니다. 전체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아무리 뛰어난 부분적 성취라 할지라도 완전한 종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힘의 총동원으로 협동적 위력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 영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단정은,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기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적수공권¹⁴⁾으로 오늘의 대 경희를 만든 데 비하면 앞으로의 노정은 더욱 손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도리어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의 뜻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며, 불연이면¹⁵⁾ 적어도 우리들의 후배인 여러분들의 손에 의하여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차원적인 정신문화의 향상과 최고도의 과학문명 발달로 복지사회를 이루어 우리 인류의 영원인 지상의 낙토 즉 문화세계를 이 세상에 창건해야 한다는 것은 인류의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고도로 발달된 교육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오한 학술 연구와 국가사회의 지도자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학부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하다고 하겠습니까.

친애하는 나의 후배 여러분.

숭고한 인류의 사명을 되새겨봅시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민족적, 인류적 대임을 자각하고 우리의 심혈을 경주하여 키워온 이 학원을 여러분들도 아끼고 사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겨레와 나아가서는 인류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학원이 되도록 키워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여러분에게 보낼 때 생존해 있던 나를 포함하여 교수와 직원 그리고 재학생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그때에는 이미 유명을 달리하여 이 자리에 없게 될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유명을 달리하였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을 저 세상에서나마 힘껏 돕고 축복하면서 이 학원을 길이 여러분과 같이 지킬 작정이오니 부디 경회정신으로 감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의 위¹⁶⁾를 이어 앞으로 이루어놓을 업적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으나, 우리의 능력에 못지 않은 여러분일 수 있기에 경회의 웅장한 미래상은 지금 우리의 심안을 가득히 채워주고 있는 감을 느끼게 합니다

끝으로 우리 경회학원의 무궁무진한 발전과 후배 여러분의 행복과 건투를 경건한 마음으로 빌며 여기에 서명하여, 나는 이 글을 개교 100주년을 맞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바입니다.

서기 1964년 10월 2일

경회학원 설립자 조영식

1. 현금(現金) 바로 지금.
2. 어간(於間) 시간이나 공간의 일정한 사이. '그동안'의 뜻으로 새길 수 있다.
3. 원자섬멸전 '원자폭탄에 의해 인류가 말살되는 전쟁'이라는 뜻.
4. 우심(尤甚)하다 더욱 심하다.
5. 현국(現局) 현재의 시국이나 국면.
6. 세국(世局) 세상이 돌아가는 형국.
7. 만난(萬難) 온갖 어려움.
8. 정사(正邪) 바른 일과 사악한 일을 아우르는 말.
9. 궁즉통, 통즉달, 달즉개(窮則通, 通則達, 達則開) '매우 궁한 처지에 이르면 도리어 퍼나갈 방법이 생기고, 통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도달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0. 계계(階梯) 본디 '사다리'라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를 뜻한다.
11. 이적(異跡) 기이한 행적. 기적.
12. 여사(如斯)하다 이러하다.
13. 분열파쟁(分裂派爭) 분열은 '집단이나 단체, 사상 따위가 갈라져 나뉘', 파쟁은 '파벌끼리 다툰다'는 뜻.
14.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과 맨주먹. 곧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뜻.
15. 불연(不然)이면 그렇지 않다면.
16. 위(爲)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경희인이 전망한 세계와 한국, 경희의 미래

경희학원은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앙케이트’를 위해 1964년 7월부터 5개 단과대학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49년의 세계와 한국의 미래, 그리고 당시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일관된 교육체계를 갖추고 급성장 중인 경희학원의 미래 등 세 개의 큰 범주 아래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조영식 박사는 앙케이트 취지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일의 시대적 카오스(Chaos)의 탁류를 헤치고 새로운 코스모스(Cosmos)를 창조하려는 경희맨의 창의적 노력, 진취적 기상, 건설적 협동정신을 발휘해 먼 훗날의 세계와 한국, 경희를 예측해봄으로써 새 역사의 여명을 지적 심안으로 직시하려는 데 이 앙케이트를 마련한 이유가 있다.”

개교 100주년의 세계

설문 문항은 그 자체가 ‘학문과 평화’를 추구하는 경희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앙케이트는 ‘20세기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첫 질문으로 시작된다. 이어,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다. 평화가 유지될 경우 세계의 미래상을 전망하는 질문이 그 뒤를 따랐다.

응답자의 73%가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미·소 간의 전면전에 의해서(43%)라기보다는 국지적인 전쟁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48%)이 더 크다고 답했다. 또 전쟁의 원인은 인구 폭발과 식량난(41%)이 될 것으로 보았다.

21세기 지구사회가 안게 될 가장 큰 문제로는 인구문제, 식량문제, 도덕적 부패를 꼽았다. 현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개교 100주년의 한국

한국의 미래와 관련한 첫 질문으로, 20세기 안에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65%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틀린 대답'이지만, 이는 당시 경희인의 통일 염원이 그 만큼 컸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통일 방법에 관해서는 UN을 통하여(28%), 남북 협상으로(22%)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50%가 평화적 통일을 원했다.

2049년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오늘의 현실에서 크게 벗어났다. 국민소득을 묻는 질문에 약 80%가 300~500달러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에 이미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국 사회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설문조사가 실시된 1964년은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며 3년 넘게 계속된 6·25전쟁이 멈춘 지 겨우 10년이 지난 해였다. 전쟁의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았으며, 경제개발이 막 시작되던 때였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21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개교 100주년의 경희

경희의 위상에 관해서는 자신감 넘치는 전망이 이어졌다. 경희의 학문적 위치가 '세계 일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동양 일류'라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개교 15주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희 구성원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찬 뜻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희의 학풍과 관련해서는 83%가 '학문과 평화'의 경희 학풍이 확립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희 학풍이 낳을 인물형(인재상)을 묻는 질문에 55%가 지도자형, 40%가 실천형이라고 답했다. 교육·연구·실천이 결합된 경희의 교육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조사 당시는 제1기 마스터플랜에 의한 건설이 마무리된 때여서 캠퍼스 환경에 대한 구성원의 자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개교 100주년의 캠퍼스 환경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세계 일류'라고 답했다. 경희의 시설 수준에 관해서도 '세계 일류'라는 응답이 49%를 차지했다. 또, 66%의 학생이 중앙도서관 장서 수가 200만 권에 이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양케이트 결과를 통해 경희 동문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교 100주년 경희의 자량을 묻는 질문에 '동문의 사회활동 및 지위'를 꼽은 학생이 67%를 차지했다. '학교 건물'이라는 응답자는 25%였다.

이 양케이트는 경희대 사회과학조사연구소 시장조사연구회원들에 의해 진행됐다. 모집단 수, 조사방법, 표본오차 등을 밝히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현대적 조사기법이 정립되지 않은 시대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케이트 결과보고서는 경희학원 이름으로 1964년 10월 2일 작성됐다.

개교 100주년의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인가?

20세기 안에 발발하지 않는다 73%, 발발한다 27%

20세기 안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경희 구성원의 73%가 “발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960년대 중반은 핵전쟁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때였다. 그럼에도 대다수가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전망한 것은 평화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 문항이 앙케이트 첫 머리에 놓이게 된 역사적 배경은 1960년대 초 세계를 핵전쟁의 위기에 몰아넣은 이른바 쿠바 미사일 사태(Cuban missile crisi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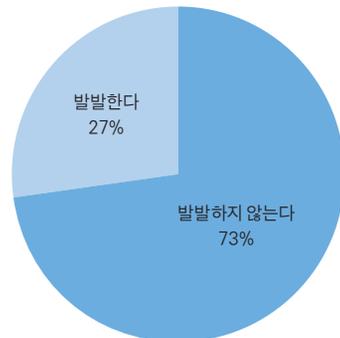
1962년 10월 22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 영토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서방세계의 안전을 위해 쿠바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틀 후인 24일 미국은 함대를 파견해 쿠바 동쪽 해상에 봉쇄선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소련의 니키타 흐루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해적 행위”라고 미국을 맹렬히 비난한 뒤 미사일을 적재한 화물선 16척을 쿠바를 향해 출발시켰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의 U-2 정찰기가

격추되고 핵어뢰를 탑재한 소련 잠수함이 폭뢰 공격을 받는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다. 핵전쟁까지도 불사할 기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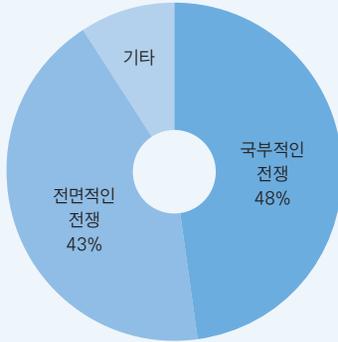
그러나 26일 소련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미사일 기지를 철거하겠다”고 제안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자 흐루시초프 서기장은 28일 미사일 기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쿠바로 향하던 화물선단의 방향을 돌렸다. 11월 2일 사태가 종료되기까지 13일 동안, 전 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20세기 안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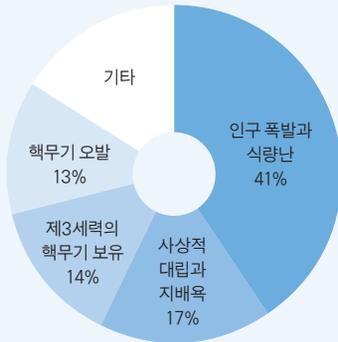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그 원인과 결과는?

인구 폭발과 식량난이 전쟁 원인 41%, 전쟁 결과는 인류 멸망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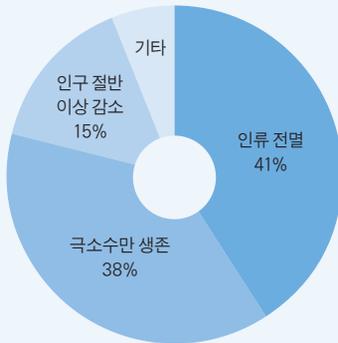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그 시발점은?

국부적인 전쟁에 의해서 48%
전면적인 전쟁에 의해서 43%
무응답 9%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 그 원인은?

인구 폭발과 식량난 41%
사상적 대립과 지배욕 17%
제3세력의 핵무기 보유국 출현 14%
각종 핵무기의 오발 13%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경쟁 5%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 3%
무응답 8%



제3차 세계대전 후의 인류 미래는?

인류가 전멸한다 41%
극소수의 생존자만 살아남는다 38%
인구 절반 이상이 감소한다 15%
무응답 6%

세계대전의 시발점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경우 전쟁이 어떤 형태로 시작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3%는 미국과 소련이 정면 충돌하는 “전면적인 전쟁에 의해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48%가 “국부적인 전쟁에 의해서” 세계대전이 촉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소 간의 심각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지적 전쟁이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은 국제정세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미국과 소련 모두 핵전쟁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세계 곳곳에서는 국지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민족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었다.

1960년대 중반의 국제정세

1964년 8월 2일, 미국 국방부는 “베트남 동쪽 통킹만 공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미 해군 구축함 매독스 호가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하고 지상군을 투입했다. 한국도 미국 요청에 따라 그해 10월부터 월남에 군대를 파병했다.

소련과 중국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전쟁의 수렁에 빠진 미국은 결국 1974년 패배를 인정하고 철수했다.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20여 년이 지난 1995년, “통킹만 사건은 베트남전쟁에 개입하기 위한 자작극이었다”고 고백했다.

1964년 5월에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결성돼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의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67년 이스라엘은 ‘PLO의 테러에 대한 응징’을 명분으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등을 공격했다.

제3차 중동전쟁 또는 ‘6일 전쟁’으로 불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인 동 예루살렘,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골란고원을 점령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동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전쟁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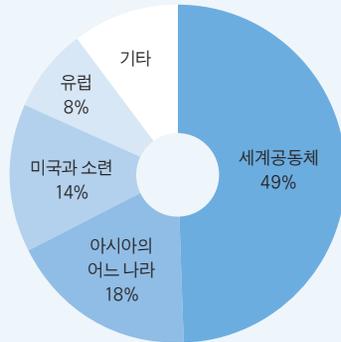
동서 냉전이 격화되고 있었지만 미·소 간의 “군비 경쟁”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3%에 불과했다. 응답자 41%는 “인구 폭발과 식량난”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문제와 식량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이며, 현재도 각국의 내부 갈등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핵무기 오발” “제3세력의 핵무기 보유” 등 핵 관련 응답률도 27%를 차지했다.

세계대전 후의 인류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견해가 79%를 차지했다. “전멸한다”는 응답이 41%, “극소수의 생존자만 살아남는다”는 견해가 38%였다. “인구 절반 이상이 감소한다”는 답변은 15%였다.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과거의 전쟁과 달리,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 양상으로 전개돼 인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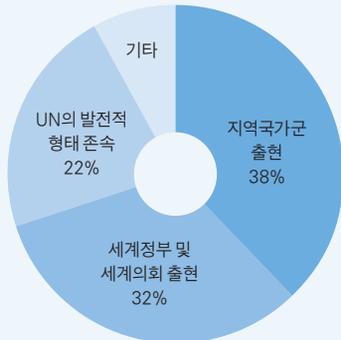
2049년의 국제사회는?

세계공동체가 헤게모니 장악 49%, 미·소 양극화 존속 가능성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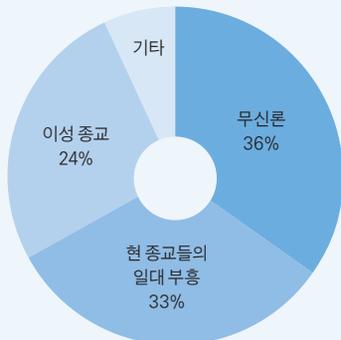
헤게모니를 장악할 나라는?

- 세계공동체 49%
- 아시아의 어느 나라 18%
- 미국과 소련 14%
- 유럽공동체 8%
- 남미의 어느 나라 2%
-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6%
- 무응답 2%



그때의 국제정치 정세는?

- 지역국가군의 출현 38%
- 세계정부 및 세계의회 출현 32%
- UN의 발전적 형태의 존속 22%
- 미국과 소련의 양극화가 연속된다 5%
- 무응답 3%



인간의 종교관은?

- 무신론 36%
- 현 종교들의 일대 부흥 33%
- 이성 종교 24%
- 무응답 7%

21세기의 헤게모니

세계가 전쟁 없이 존속할 경우, 경희가 100주년을 맞는 2049년, 어떤 나라가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절반에 해당하는 49%가 “세계공동체”라고 응답했다. “미국과 소련”이라고 보는 시각은 14%에 불과했다.

당시 경희 구성원들은 UN에 대한 전폭적 신뢰를 보내는 등 세계의 공동체적 미래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경희의 창학정신, ‘학문과 평화’의 전통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계정부 및 세계의회 출현”이라는 응답이 32%를 차지한 것은 비현실적인 예상으로 보인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창설된 UN이 세계평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온 것은 분명하다. 한 예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UN의 깃발 아래 세계 21개국이 군대를 파병하고 의료진을 지원했다. 그러나 강대국의 패권주의 아래서 냉전 위기와 지역 분쟁 해소를 위한 노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주목할 것은, 응답자의 18%가 “아시아의 어느 나라”가 21세기의 패권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본 점이다. “미국과 소련”(14%)이라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특정 국가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나 1964년 당시 일본은 경제 부흥 초기 단계였다. 중국의 성장으로 세계 정치·경제의 헤게모니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21세기 들어서의 일이다.

21세기의 국제정세

국제정세에 대한 전망도 앞의 응답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과 소련의 양극화가 연속된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22%가 “UN의 발전적 형태의 존속”이라고 답해 국제평화기구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역국가군의 출현”이 3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지역국가군이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미래의 국제정세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국가 간의 정치적 통합까지는 아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블록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967년 7월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설립됐다. EEC를 기반으로 유럽은 1994년 1월 1일 지역공동체로서 유럽연합(EU)을 탄생시켰다. 1967년 8월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협력기구인 아세안(ASEAN)이 창설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은 1989년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결성을 가져왔다. 이들은 경제 중심의 지역협력체이지만 역내의 정치적 영향력과 안보전략이 완전히 배제된 기구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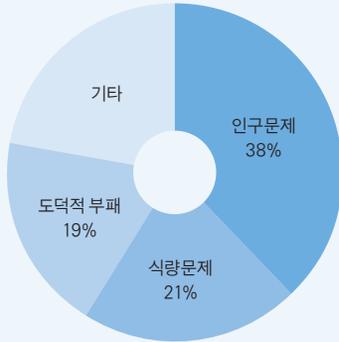
21세기 인류의 종교관

21세기 인류의 종교관에 관해 경희인 36%는 “무신론”이라고 답했다. 기존 종교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종교들의 일대 부흥”이 33%를 차지한 것도 이 같은 시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종교 갈등이 세계평화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슬람 세계와 서구 세계의 충돌은 9·11 테러 공격과 같은 참혹한 사태를 가져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끝없는 전쟁,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영국에 대한 테러 등은 민족 및 영토 문제와 연결된 종교 갈등에서 비롯됐다.

미래의 지구적 문제와 해결 방안은?

인구문제 38%, 식량문제 21%, 도덕적 부패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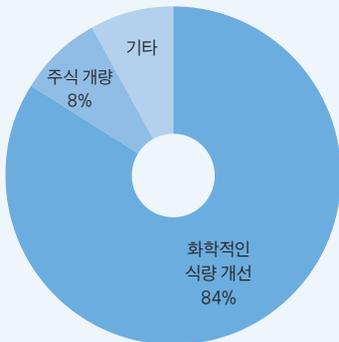
2049년의 가장 큰 세계문제는?

- 인구문제 38%
- 식량문제 21%
- 도덕적 부패 19%
- 빈곤 5%
- 이데올로기 5%
- 질병 5%
- 전쟁 3%
- 무응답 4%



세계 인구는?

- 약 70억 명 73%
- 약 60억 명 18%
- 약 50억 명 4%
- 무응답 5%



식량문제 해결책은?

- 화학적인 식량 개선 84%
- 주식 개량 8%
- 우주 개발 5%
- 농지 개량 3%

21세기의 지구적 문제

미래의 세계가 안게 될 가장 큰 문제로 응답자 38%가 “인구문제”를 꼽았다. “식량문제”라는 응답이 21%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응답은 경희인 59%가 ‘인구 및 식량’ 문제를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급격한 인구 증가는 경제와 복지, 에너지, 주거, 보건위생 등 많은 문제를 가져오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식량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도덕적 부패”가 세 번째로 높은 19%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전쟁”(3%)과 “이데올로기”(5%)의 응답률은 낮은 편이었다. 부패가 만연했던 1950~1960년대 한국의 사회현실이 반영된 답변일 수 있지만,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의 도덕적 실천이 미래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저개발 국가 또는 일부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적 부패는 국가 내부의 갈등뿐 아니라 지역적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정치·경제적 부패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로 2008년 세계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금융산업의 도덕 불감증에서 비롯됐다. 도덕적 해이와 부패는 21세기의 인류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환경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당시만 해도 그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정된 자원 속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발표된 것은 1972년의 일이다. 1979년 10월, 경희는 로마클럽과 합동으로 ‘21세기의 전망과 문제점’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세계 인구에 대한 전망

2049년 세계 인구가 “70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응답이 73%였다. “60억 명”이라는 예상은 18%였다. 1960년대의 세계 인구는 30억 명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91%는 경희가 개교 100주년을 맞게 되는 85년 뒤의 세계 인구가 2~2.3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2012년 현재 세계 인구는 이미 70억 명을 넘어섰다. 세계은행은 2050년 세계 인구가 약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식량문제 해결책

세계 인구에 대한 전망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당시로서는 꽤 의미 있는 예측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학기술에서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84%는 “화학적인 식량 개선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화학적인 개선’이라는 응답은 주로 화학비료 사용, 병충해 방지 기술 개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것은 1953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을 통해서이며, 이들은 1962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당시로서는 생명공학에 의한 지구적 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다. 생명공학기술이 의학과 농업 등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생명공학기술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를 가져왔으나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위험성에 관한 논란도 진행되고 있다. 그 때문에 생태계 보전, 먹거리의 안정성 등 측면에서 자연친화적 유기농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교 100주년의 한국

남북통일은 가능한가?

20세기 안에 통일 가능하다 65%, 불가능하다 35%

한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다. 1945년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이 그어진 후 분단의 고통은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시기는 언제일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앞에 놓인 풀기 어려운 화두다.

20세기 안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65%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964년 당시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10여 년이 지난 때였다. 6·25전쟁 이후 남북 분단이 더욱 고착돼 통일의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대다수 응답자가 통일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에 대한 염원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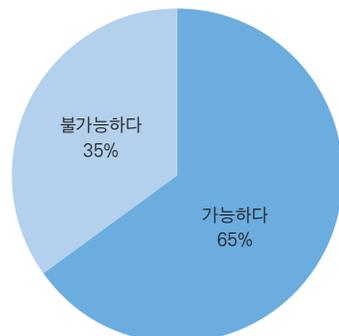
민족사의 시각에서 볼 때, 20세기는 가장 불행한 100년이였다.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 조선의 주권은 일본 제국주의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1910년의 한일병탄 이후 36년간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을 맞았지만 국토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1950년에는 북한군의 침공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

3년간 계속된 전쟁의 피해는 막심했다. 전투 병력

과 민간인을 포함해 260만 명의 인명 피해를 낳았으며 거의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됐다. 가족의 붕괴, 이데올로기 대립,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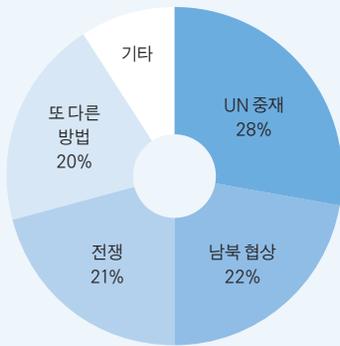
지난 100년간 한민족은 주권 상실과 분단으로 인해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겪어왔다. 민족 차원에서, 남북 분단은 과도한 군비 경쟁과 자원 낭비를 초래했으며 사상적 대립은 민족의 창의성 개발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평화의 측면에서도 한반도 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다.

20세기 안에 남북통일이 이뤄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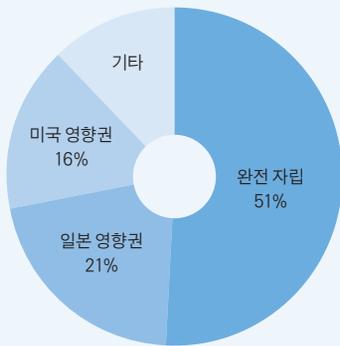
통일 방법과 통일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UN에 의한 통일 28%,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 22%, 전쟁에 의한 통일 21%



통일 방법은?

UN을 통하여 28%
남북 협상으로 22%
전쟁으로 21%
또 다른 방법으로 20%
무응답 9%



통일한국의 지위는?

완전 자립한다 51%
일본의 영향을 받는다 21%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16%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9%
무응답 3%

통일 방법

20세기 안에 남북통일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물었다. 그에 대한 의견은 다양했다. “UN을 통하여”가 2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북 협상”에 의한 통일이 22%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두 응답률을 합치면 50%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도 21%에 달했다. 참혹한 전쟁의 후유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을 낳기 때문이다.

이 밖에 “또 다른 방법으로”가 20%, 무응답이 9%를 차지했다. 약 30%가 명확한 의견을 피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통일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당시 남과 북은 이데올로기 공세와 경제개발을 통한 체제 경쟁에 몰두하고 있었다.

한국과 UN

당시 경희 구성원은 UN과 같은 국제평화기구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세계의 헤게모니와 국제질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8~29쪽 참조)에서도 확인됐다.

UN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류가 더 이상의 반문명적 참상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창설됐다. 그에 앞서, 제1차 세계대전 후 UN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설립된 바 있다.

국제연맹은 1920년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스위스 제네바

에 본부를 두고 세워졌다. 그러나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불참하고, 침략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결국 1933년 일본과 독일이, 1937년에는 이탈리아가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이들에 의해 세계는 또 한 차례 큰 전쟁에 휘말렸다.

1945년 10월 24일,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공식 출범했다.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이 참여하고, 침략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제연맹보다 발전된 형태의 국제기구였다.

UN은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유엔군을 조직해 침략행위를 한 나라에 대해 무력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UN은 최초로 연합군을 파병해 북한군을 응징했다. 당시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지원했으며 5개국이 의료진을 파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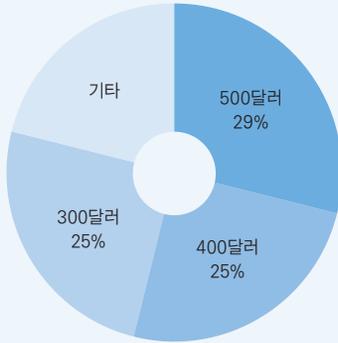
이 같은 사연 때문에 한국인들은 UN에 고마움을 표하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경희인 28%가 ‘UN을 통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한국은 1950년부터 UN이 창설된 10월 24일을 공휴일(유엔의 날)로 기념하기도 했다. 유엔의 날은 1976년 폐지됐다.

통일한국의 지위

남북 통일을 이룬 후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 51%가 “완전 자립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16%), 중국(9%), 일본(21%) 등 외국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도 총 46%에 달했다. 당시 최빈국에 속해 있던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관한 다소 비관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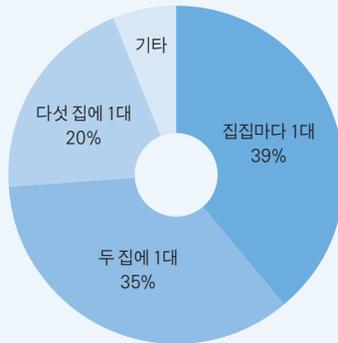
2049년의 한국 경제와 사회는?

국민소득 500달러 29%, 모든 가구 승용차 보유 39%, 서울 인구 1,000만 명 47%



2049년 한국의 국민소득은?

- 500달러 29%
- 400달러 25%
- 300달러 25%
- 200달러 6%
- 100달러 11%
- 무응답 4%



생활수준을 자동차 수로 따진다면?

- 집집마다 1대 39%
- 두 집에 1대 35%
- 다섯 집에 1대 20%
- 무응답 6%



그때의 서울 인구는?

- 1,000만 명 47%
- 800만 명 39%
- 500만 명 9%
- 무응답 5%

1인당 국민소득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4년 실시된 앙케이트에서 현재 수준과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낸 것은 미래 한국의 국민소득 전망이었다.

경희인의 약 80%는 204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이 300~5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500달러”라는 응답이 29%, “300달러”와 “400달러”가 각각 25%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은 2010년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했다. 2049년을 35년이나 남겨놓은 현재 기준으로 40~50배나 차이가 나는 잘못된 예상치였다.

이 같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5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좁혀서 생각해볼 수 있는 몇 가지 통계가 있다.

세계은행의 한국경제 통계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196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1달러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그 무렵,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 기간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962년 104달러, 1963년 142달러, 1964년 121달러, 1965년 106달러, 1966년 130달러였다.

경희인들이 예측한 300~500달러 수준에 도달해 있는 나라는 464달러의 포르투갈과 싱가포르였다. 전후 부흥에 성공해 1964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일본의 국민소득은 836달러였다.

2011년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2,427달러, 미국은 48,442달러로 2.5배 차이를 보인다. 1964년 미국의 국민소득은 3,423달러로 한국과

3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당시 상황에서 이 같은 격차 해소를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다. 오히려 한국의 경제성장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구당 자동차수

어떤 의미에서는 2049년의 국민소득 예상보다도 “집집마다 자동차를 1대씩 보유한다”는 응답(39%)이 더 어긋난 결과일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마이카 붐’이 일었던 1970년대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를 넘었다.

한국에서 마이카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상승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와 석유값이 크게 낮아지는 이른바 ‘3저 호황’에 힘입어 경제가 되살아났다. 1986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445달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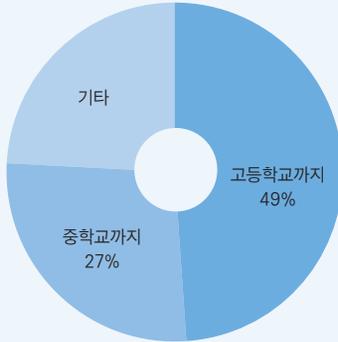
2049년의 서울 인구

2049년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응답자가 47%로 가장 많았다. “800만 명”이라는 대답도 39%였다. 서울이 초대형 도시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서울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1959년 인구 200만을 돌파한 서울 인구는 1963년 약 325만 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올림픽이 치러진 1988년 서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나친 서울 집중 현상을 피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서울 인구는 1,000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이상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교육과 문화 수준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49%, 문맹자 수는 5~10%로 낮아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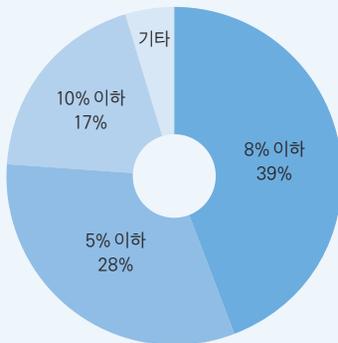
의무교육 연한은?

고등학교까지 49%
 중학교까지 27%
 대학교까지 11%
 초등학교까지 8%
 무응답 5%



그때의 문맹자 수는? (남자)

5% 이하 63%
 10% 이하 27%
 20% 이하 8%
 20% 이상 2%



그때의 문맹자 수는? (여자)

5% 이하 28%
 8% 이하 39%
 10% 이하 17%
 10% 이상 4%

의무교육 연한

2049년 한국의 의무교육 연한을 묻는 질문에 “고등학교까지”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27%는 “중학교까지”라고 답했다. “대학교까지”라는 과격적인 응답이 11%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이 설문문의 중요성을 지나치기 쉽다. 의무교육을 ‘이미 충분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교육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지금도 한국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의무교육 실시 역사와 현황

교육은 국방, 납세, 근로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것은 6·25 전쟁 후인 1954년이다. 1959년 학령아동 취학률이 96.4%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취학률이 높아진 반면 학교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교실이 모자라 등교 시간을 오전·오후로 나눠 조정하는 2부제 수업, 3부제 수업이 이뤄졌다.

1960년대 10년 동안 교육시설 확충이 이뤄지고, 1970년대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정착됐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부터 실시됐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에 달한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경희인 49%가 전망했던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교육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

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의무교육이 아니어도 대부분 고교 학비를 무상 지원한다. 한국의 경우, 고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외에도 연간 수백만 원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문맹자수

1950년대 한국의 문맹률은 70% 수준이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문자를 해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지식과 문화의 축적과 전파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 1950~6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과 무지였다. 경희가 그 무렵 문맹퇴치운동, 농촌계몽운동에 주력한 것은 그 때문이다.

1960년대는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로 문맹률이 낮아지던 때였다. 그럼에도 당시의 경희인은 2049년까지도 문맹이 완전히 퇴치될 것이라고 내다보지 않았다. 대다수가 남녀를 통틀어 5~10%의 문맹률을 예상했다. 현재 한국의 문맹률은 1% 이하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결혼 적령기

미래사회의 결혼 적령기는 언제일까? 지난해 경희가 앙케이트 내용을 공개했을 때 많은 언론이 이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절반이 넘는 53%가 “18세”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20세”라는 응답도 27%를 차지했다.

경희인의 80%는 2049년에는 18~20세의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30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는 오늘의 현상과는 많이 동떨어진 예상이었다.

개교 100주년의 경희

경희의 학술적 위상은?

세계의 일류 65%, 동양의 일류 20%, 한국의 일류 15%

학술적 탁월성은 대학의 수준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다. 개교 100주년 경희의 학술적 위상을 묻는 질문에 65%가 “세계 일류”라고 답했다. “동양 일류”라는 응답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1964년의 경희인 대다수(85%)는 경희가 세계적인 명문대학, 또는 아시아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시 경희는 개교 15주년을 맞은 신생 대학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50년 전의 경희인들은 세계적 명문대학을 향한 포부와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이는 조영식 박사의 교육철학과 비전, 불굴의 도전정신과 소통의 리더십을 빼놓고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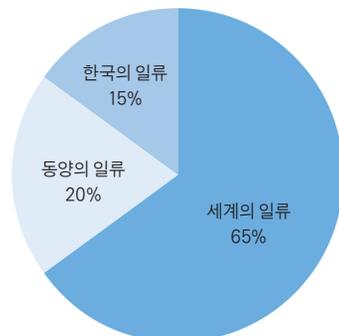
경희가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1955년 개교기념식에서 조영식 박사는 다음과 같은 각오를 밝혔다. “나의 이 대학에 대한 책임은 오직 훌륭한 대학을 건설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우수한 대학이 될 때까지 만반을 무릅쓰고 젊음의 열정을 쏟는 일이다.”

개교 100주년에 보내는 미래메시지를 통해서도 그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다. “우리의 목표인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 영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단정

은,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기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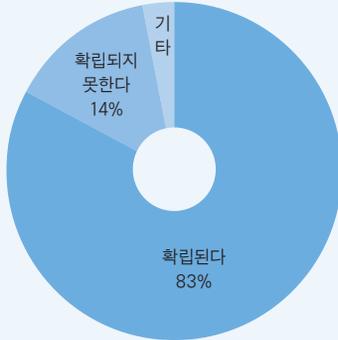
경희는 현재 그 같은 미래비전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세계대학 200위권, 아시아대학 4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희의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은 개교 70주년 이전에 국내 정상권을 넘어 아시아 정상으로, 개교 80주년 이전에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목표다.

개교 100주년 경희의 학문적 위치는?



경희의 학풍과 인재상은?

'학문과 평화'의 경희 학풍 확립된다 83%, 학생 수준은 "동양의 일류"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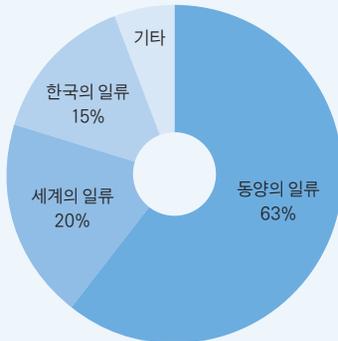
개교 100주년의 경희 학풍은?

확립된다 83%
확립되지 못한다 14%
무응답 3%



경희 학풍이 낳은 인물형은?

지도자형 55%
실천형 40%
신사형 2%
재사형 1%
사무가형 1%



경희의 학생 수준은?

동양의 일류 63%
세계의 일류 20%
한국의 일류 15%
한국의 이류 4%
무응답 2%

경희의 학풍

‘학문과 평화.’ 경희의 독창적 학풍은 이 한 마디 말에 집약돼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근본적인 사명은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적 탁월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대학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 학술적 성취를 통해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 구현에 기여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 대학다운 대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경희의 학풍이자 오랜 전통이다.

양케이트가 실시된 1964년은 ‘학문과 평화’의 학풍과 전통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개교 100주년에 경희 학풍이 확립될 것이냐는 질문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응답자 83%가 “확립된다”고 답했다.

‘학문과 평화’를 위해 경희는 개교 이래 60여 년 동안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강조해왔다. 학문을 연마하는 동시에 봉사를 통한 사회적 실천에 앞장섰다. 교육을 위한 교육, 연구를 위한 연구를 넘어, 교육·연구·실천이 한몸을 이룰 때 대학은 궁극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궁극의 목표는 경희의 교시(校是)로 제시된 ‘문화세계의 창조’이다. 이는 조영식 박사가 1951년, 30세의 젊은 나이에 발표한 두 번째 저서의 제목이기도 하다.

경희의 사회적 실천

1950~60년대 한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보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1945년 당시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45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문맹률이

73.5%에 달했다. 게다가 3년간의 전쟁으로 전 국토가 파괴되고 민생은 처참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의 1인당 GNP는 100달러 수준이었다.

경희는 1950년대 중반부터 농촌계몽운동, 산림녹화운동,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했다. 이 같은 경험과 외국의 사례연구 결과를 집약해 1965년에는 범국민적 ‘잘살기운동’을 제창했다. 교육을 통해 인재(인력 자원)를 양성하고, 좌절에 빠진 국민에게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회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잘살기운동은 뒷날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됐다.

경희의 사회적 실천은 1970년대 들어 지구 차원의 밝은사회운동(GCS), 인류사회재건운동으로 발전했다. 1981년 조영식 박사는 “인류를 핵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를 제정하자”고 최초로 제안했다. 그해 11월 유엔 총회는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희의 인재상과 학생 수준

경희가 배출하는 인물형(인재상)에 대해서는 “지도자형”이 55%, “실천형”이 40%를 차지했다. ‘학문과 평화’의 학풍 속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배출되리라고 확신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천형 인재’에 대한 응답이 많았던 것은 교육·연구·실천의 결합을 강조해온 경희 교육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준에 관해서는 63%가 “동양의 일류”라고 답했다. “세계의 일류”라는 응답률도 20%에 달했다. 당시 경희 구성원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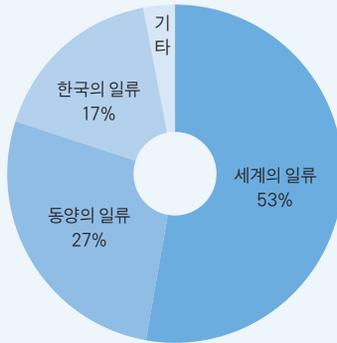
캠퍼스 환경과 학술 인프라 수준은?

세계 일류 캠퍼스 53%, 중앙도서관 장서 200만 권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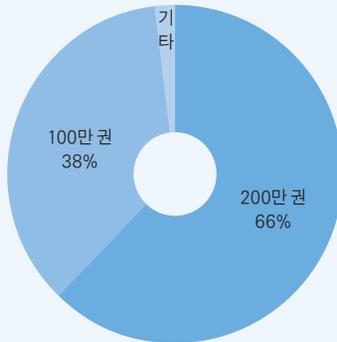
개교 100주년 경희의 시설 수준은?

세계의 일류 49%
 동양의 일류 37%
 한국의 일류 12%
 무응답 2%



캠퍼스 환경은?

세계의 일류 53%
 동양의 일류 27%
 한국의 일류 17%
 무응답 3%



중앙도서관 장서 수는?

200만 권 66%
 100만 권 38%
 50만 권 2%

경희의 시설 수준과 캠퍼스 환경

개교 100주년 경희의 시설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9%가 “세계의 일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동양의 일류”에 도달한다는 응답도 37%에 달했다. 캠퍼스 환경에 대한 경희인의 예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계의 일류”라는 답변이 53%, “동양의 일류”가 27%를 차지했다.

1964년 당시 한국 대학생들은 수백 년 전통의 서구 명문대학 캠퍼스를 직접 경험할 수 없었다. 따라서 동양의 일류, 또는 세계의 일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희망 섞인 응답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80% 이상이 그런 응답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경희의 캠퍼스 시설과 환경에 높은 만족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제1기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성공적 추진이 그 근거가 된다.

경희의 캠퍼스 마스터플랜

경희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캠퍼스를 건설한 국내 최초의 대학이다. 1953년 10월, 서울 회기동 고향산 기슭에 30만 평의 교지를 확보한 조영식 박사는 한 달 동안 산 중턱을 오르내리며 지세를 살피고 구상을 다듬었다. 어느 장소에 어떤 건물을 지을지, 건축 양식은 무엇으로 할지, 녹지는 어떻게 배치할지, 섬세하게 배려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 각종 건축 서적을 독파하며 손수 설계도를 그렸다.

경희의 상징인 본관 석조전과 중앙공원, 교시탑, 아치형 정문(등용문), 400미터 정규 트랙을 갖춘 종합운동장, 뒷날 한국 스포츠의 요람이 된 체육대학관, 문리대학관, 노천극장, 임간학교 등이 창학 초기에 지어진 주요 건축물이다. 자연애호가였던 조영식 박사는 나무 한 그루, 바윗돌 하나라도 원래

상태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빼어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애썼다.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희 캠퍼스는 이런 노력과 열정의 산물이다.

동양 최대의 중앙도서관

1960년 착공된 중앙도서관은 앙케이트가 실시된 1964년 당시에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동양 최대 규모의 중앙도서관은 1968년 6월 18일 세계대학총장회(IAUP) 서울대회 개막일에 맞춰 준공됐다. 세계 35개국에서 온 105명의 대학총장 등 1,000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은 경희의 도서관에 감탄했다.

개교 100주년의 중앙도서관 장서 수를 묻는 질문에 66%가 “200만 권”이라고 답했다. “100만 권”이라는 응답도 38%에 달했다. 이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조영식 박사의 교육정신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이기도 했다. 피난지 부산에서 동대신동 교사를 지을 때도 조영식 박사는 독립된 도서관 건물을 따로 지어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현재 서울·국제캠퍼스의 중앙도서관 장서 수는 총 300만 권을 넘는다.

전임교수 수

대학의 수준은 우수한 교수진에 의해 좌우된다. 앙케이트에서 전임교수 수를 묻는 질문에 “500명 대”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300명 대”가 35%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경희의 전임교원 수는 1,500여 명에 달한다. 경희는 최근 5년간 500여 명의 교원을 신규 임용하는 등 학술적 탁월성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50년 전의 경희인들은 경희가 지금처럼 양적·질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듯하다.

개교 100년 경희의 자량은?

동문의 사회활동 및 지위 67%, 학교 건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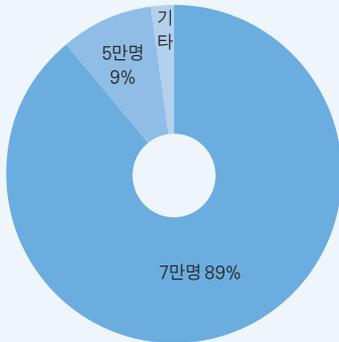
개교 100주년의 경희의 자량은?

- 동문의 사회활동 및 지위 67%
- 학교 건물 25%
- 교수진 3%
- 학생 수 2%
- 무응답 3%



경희 동문의 사회적 활동 무대는?

- 정치계 30%
- 예능계 29%
- 경제계 19%
- 교육계 13%
- 법조계 9%



그때의 동문 수는?

- 7만명 89%
- 5만명 9%
- 2만명 2%

경희의 자랑

개교 100주년을 맞았을 때 경희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67%가 “동문의 사회활동 및 지위”를 꼽았다. “학교 건물”이라는 응답자가 그 뒤를 이어 25%를 차지했다.

1964년 경희는 제1기 마스터플랜에 의한 캠퍼스 건설을 거의 마무리했다. 큰 규모의 공사로는 동양 최대의 중앙도서관이 건설 중이었다. 경희의 마스터플랜은 국내 대학 최초의 캠퍼스 건설계획이었다. 조영식 박사의 섬세한 공간 구성과 치밀한 설계, 의욕적인 사업 추진 등은 전국의 화제를 모았다. 서울캠퍼스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로 평가된다. 따라서 “학교 건물”이 경희의 자랑으로 꼽힌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동문의 사회활동 및 지위”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다. 1953년 3월, 경희는 피난지 부산에서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수는 45명이었다. 1955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후 지속적인 학과 증설이 이뤄졌지만, 양케이트가 실시된 1964년의 학과 편제는 5개 단과대학에 불과했다.

경희의 대학이념과 가족정신

이런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당시 경희 동문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다른 명문대학들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경희의 국내외적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다. 1968년의 세계대학총장회(IAUP) 서울대회 개최, 1971년의 경희의료원 개원 등이 그 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4년 재학생들의 동문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이유는 경희의 특유의 학풍과

가족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경희는 1961년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에 걸쳐 일관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학원체제를 수립했다. 이후 경희학원의 이름 아래 전 구성원은 경희 가족운동을 전개했다.

1952년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저서 <대학의 이념>을 통해 상아탑에 안주해 있던 유럽의 지식 풍토를 비판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경희는 창학 초기부터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쌓아 올리며 교육·연구·실천이 결합된 미래지향적 대학을 건설하고 있었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는 경희가 추구하는 대학다운 대학의 이념이자 목표였다.

개교 60주년의 경희 비전, “지구적 존엄의 구현 (Towards Global Eminence)”은 이의 계승, 발전이었다. 이런 학풍과 전통 속에서 경희 구성원은 1960년대부터 남다른 자부심을 키워왔던 것으로 해석된다.

동문의 사회진출과 규모

경희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해 있던 당시의 재학생들도 경희가 오늘날처럼 발전할 것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교 100주년의 동문의 수에 대한 물음에 “7만 명”이라는 응답이 89%를 차지했다. 2012년 현재 경희 동문은 24만 명에 이른다.

동문의 사회 진출 무대에 관해서는 “정치계” 30%, “예능계” 29%라고 응답해 오늘의 현실과 차이를 보였다. 창학 초기부터 예체능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경희의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정치계 진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같은 답변은 경희 학풍이 ‘지도자’를 배출할 것이라는 전망(42~43쪽 참조)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1.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앙케이트 설문

1. 개교 100주년의 세계

설문 1

금세기 내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인가?

- 한다
- 안 한다

만약 발발한다면 그 시발점은?

- 전면 전쟁에 의해서
- 국부 전쟁에 의해서

제3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 미소 간의 군비 경쟁
- 인구 폭발과 식량난
- 각종 핵무기의 오발
- 사상적 대립과 지배욕
-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경쟁
- 제3세력의 핵무기 보유국 출현으로

설문 2

제3차 세계대전 후의 인류는?

- 전멸한다
- 약 반 이상 감한다
- 극소수의 생존자만 남는다

설문 3

만일 세계가 현금과 같이 존속한다면

그 헤게모니를 장악할 나라는?

- 미국과 소련
- 아시아의 어느 나라
- 남미의 어느 나라
-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 유럽공동체
- 세계공동체

설문 4

그때의 가장 큰 세계 문제는?

- 인구
- 식량
- 전쟁
- 빈곤
- 도덕적인 부패
- 이데올로기
- 질병

설문 5

그때의 세계 인구는?

- 약 50억 명
- 약 60억 명
- 약 70억 명

설문 6

식량문제의 해결책은?

- 농지 개량으로
- 주식 개량으로

- 우주 개발로
- 화학적인 식량 개선

설문 7

그때의 국제정치 정세는?

- 미·소 간의 양극화가 연속된다
- UN의 발전적 형태의 존속
- 지역국가군의 출현
- 세계정부 및 세계의회 출현

설문 8

인간의 종교관은?

- 무신론
- 현 종교들의 일대 부흥
- 이성 종교

2. 한국 사회의 변화상

설문 1

금세기 내에 남북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

통일의 방법은?

- 전쟁으로

- UN을 통하여
- 남북 협상으로
- 또 다른 방법으로

설문 2

그때의 한국의 지위는?

-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 일본의 영향을 받는다
- 완전 자립한다

설문 3

2049년의 국민소득은?

- 100달러
- 200달러
- 300달러
- 400달러
- 500달러

설문 4

그때의 물질 생활수준을 자동차 수로 따진다면?

- 집집마다 1대
- 두 집에 1대
- 다섯 집에 1대

설문 5

그때의 서울 인구는?

- 500만 명 대
- 800만 명 대
- 1,000만 명 대

설문 6

의무교육 연한은?

- 초등학교까지
- 중학교까지
- 고등학교까지
- 대학교까지

설문 7

**그때의 문맹자 수는?
전체 인구의 몇 %이나?**

- 남자
- 여자

설문 8

그때의 결혼연령의 적기는?

- 18세
- 20세
- 25세
- 30세

3. 경희학원의 성장

설문 1

개교 100주년의 경희의 확풍은?

- 확립된다
- 채 못 선다

경희학풍이 낳은 인물의 형은?

- 지도자형
- 신사형
- 재사형
- 실천형
- 사무가형

설문 2

그때의 경희의 자랑은?

- 교수진
- 학교 건물
- 동문의 사회활동 내지 지위
- 학생 수

설문 3

그때 경희학원의 학생 수는?

- 1만 명 대
- 2만 명 대
- 3만 명 대

유치원

- 200명
- 400명

- 600명

초등학교

- 400명
- 3,000명
- 5,000명

중학교

남학교의 경우

- 1,000명
- 3,000명
- 5,000명

여학교의 경우

- 1,000명
- 3,000명
- 5,000명

고등학교

남학교의 경우

- 1,500명
- 3,000명
- 5,000명

여학교의 경우

- 1,500명
- 3,000명
- 5,000명

설문 4

그때의 전임교수 수는?

- 300명 대
- 500명 대
- 700명 대
- 1,000명 이상

설문 5

한국 내의 학문적 위치는?

- 한국 내에서 일류
- 동양의 일류
- 세계의 일류

설문 6

그때의 경희학원 수준은?

시설

- 한국 내에서 일류
- 동양의 일류
- 세계의 일류

캠퍼스 환경

- 한국 내에서 일류
- 동양의 일류
- 세계의 일류

학생들의 수준

유치원

- 한국 내 일류
- 동양의 일류
- 세계의 일류

초등학교

- 한국 내 일류
- 동양의 일류
- 세계의 일류

중학교

- 한국 내 일류
- 한국 내 이류
- 동양의 일류
- 세계의 일류

고등학교

- 한국 내 일류
- 한국 내 이류
- 동양의 일류
- 세계의 일류

대학교

- 한국 내 일류
- 한국 내 이류
- 동양의 일류
- 세계의 일류

설문 7

경희 동문의 사회적 진출이 가장 큰 방향은?

- 정치계
- 교육계
- 법조계
- 경제계
- 예능계

설문 8

그때의 우리 동문 수는?

대학교

- 2만 명
- 5만 명
- 7만 명

유치원

- 1,500명
- 2,500명
- 5,000명

초등학교

- 4,000명
- 6,000명
- 8,000명

중학교

남학교의 경우

- 7,000명
- 9,000명
- 12,000명

여학교의 경우

- 7,000명
- 9,000명
- 12,000명

고등학교

남학교의 경우

- 7,000명
- 9,000명
- 13,000명

여학교의 경우

- 4,000명
- 9,000명
- 13,000명

전 경희학원

- 5만 명
- 10만 명
- 15만 명
- 20만 명 이상

설문 9

중앙도서관의 장서 수는?

- 50만 권
- 100만 권
- 200만 권

2. 경희학원 각급 학교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

경희고등학교

1. 2049년의 학생 수준

- 한국의 일류 23%
- 한국의 이류 4%
- 동양의 일류 64%
- 세계의 일류 9%

2. 학생 수

- 1,500명 12%
- 3,000명 36%
- 5,000명 51%
- 무응답 1%

3. 동문 수

- 7,000명 9%
- 9,000명 21%
- 13,000명 68%
- 무응답 2%

경희여자고등학교

1. 2049년의 학생 수준

- 한국의 일류 23%
- 한국의 이류 4%
- 동양의 일류 64%
- 세계의 일류 9%

2. 학생 수

- 1,500명 17%
- 3,000명 32%
- 5,000명 48%
- 무응답 3%

3. 동문 수

- 7,000명 8%
- 9,000명 30%
- 13,000명 59%
- 무응답 3%

경희중학교

1. 2049년의 학생 수준

- 한국의 일류 25%
- 한국의 이류 3%
- 동양의 일류 66%
- 세계의 일류 7%

2. 학생 수

- 1,000명 14%
- 3,000명 36%
- 5,000명 50%
- 무응답 3%

3. 동문 수

- 7,000명 12%
- 9,000명 25%
- 12,000명이 59%
- 무응답 4%

경희여자중학교

1. 2049년의 학생 수준

- 한국의 일류 25%
- 한국의 이류 3%
- 동양의 일류 66%
- 세계의 일류 7%

2. 학생 수

- 1,000명 17%
- 3,000명 35%
- 5,000명 45%
- 무응답 4%

3. 동문 수

- 7,000명 17%
- 9,000명 38%
- 12,000명 43%
- 무응답 3%

경희초등학교

1. 2049년의 학생 수준

- 한국의 일류 12%
- 동양의 일류 70%
- 세계의 일류 18%

2. 학생 수

- 400명 9%
- 3,000명 24%
- 5,000명 62%
- 무응답 5%

3. 동문 수

- 4,000명 11%
- 6,000명 38%
- 8,000명 51%

경희유치원

1. 2049년의 학생 수준

- 한국의 일류 8%
- 동양의 일류 63%
- 세계의 일류 24%

2. 학생 수

- 200명 4%
- 400명 16%
- 600명 80%

3. 동문 수

- 1,500명 28%
- 2,500명 22%
- 5,000명 48%
- 무응답 2%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기획·편집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발행일 2013년 5월 18일

전화 02)961-0106~8

이메일 press@khu.ac.kr

© 경희대학교, 2013

ISBN 978-89-8222-450-8 03040